

##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지역 수해 복구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전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에선 지난 8월 8일과 9일 최고 617.5mm 폭우가 내리며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수마가 지나간 피해는 크고 깊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잃으신 분들, 토사에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어르신과 걱정스러운 눈빛의 시민분들을 보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재민을 내 가족처럼 위로하며 피해 현장에서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수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펴 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정성과 관심으로 이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은 평생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도움을 나누어 주는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이었지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기적의 결실을 맺으며 가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분들께 4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 주 시 장 방 세 환 드림